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5년 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12:1-3)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하나님이 쓰시는 종의 특징

(사 42:1-5)

하나님은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등 이루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종들을 이스라엘에 보냈고, 그들을 통해 경고하고 호소하시며 이스라엘을 고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십니까?

1.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종

이사야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리 행복한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긴 했지만 사람들이 오히려 강박하게 되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과 같으면 실망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그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인간의 지혜와 경험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힘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바로 그 성령님의 권능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종

하나님의 종은 결코 자기과시를 하면 안 됩니다. 큰소리 내거나 목소리를 높여 다른 사람들이 다 들도록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일에 대해서 다 인정받고 칭찬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받을 상이 없게 될 것입니다.

3. 긍휼의 마음을 가진 종

예수님은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을 꺾지 않고 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3절).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을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이 크리스천들의 능력입니다.

4. 결코 낙심하지 않는 종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쓰임 받는 종은 낙심하지 않는 종입니다(4절).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를 위해 부족언어들을 배워서 문법책과 사전을 10년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심방을 갔다가 돌아와보니 집이 불이 나서 그 문법책이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다시 시작하므로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권능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예수님을 닮은 종들입니다.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종, 겸손한 종, 긍휼과 사랑의 종, 낙심하지 않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The trait of servant whom God uses

(Is. 42:1-5)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God sent Moses, Joshua, Samuel, Jeremiah, Ezekiel, Daniel, Hosea, and etc, servants of God to Israel. Through the servants God warned, appealed, and wanted to put Israel right. What kind of people can God uses as his servant?

1. The servant who thoroughly relies on only God

When we see Isaiah personally, he was not a happy worker. Wherever he went, he was not welcomed, even though he proclaimed God's word, on the contrary, he only saw the eccentric aspect of men. If he was like a fair man, he should have been disappointed and frustrated. Nevertheless, anyone who thoroughly relied on God was never driven to despair but was able to fulfill what God entrusted him with.

Jesus has never asked us for to do his work with human wisdom, experience, strength, and ability. He said that we should receive the power that comes from above. He says that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us, we will receive power, and then, with the power the Holy Spirit, fulfill the work God gave us.

2. The modest servant that lowers oneself and gives glory to God

God's servant must never make a big show of oneself. You must not be proud of yourself and shout in a loud voice so other people can hear. It was Jesus who did not shout, raise His voice. And Jesus did not make anyone hear His voice on the street.

If we want to be recognized and admired for what we have done in the world, we will not have any prize that we can receive in the kingdom of God.

3. The servant who has a mind of compa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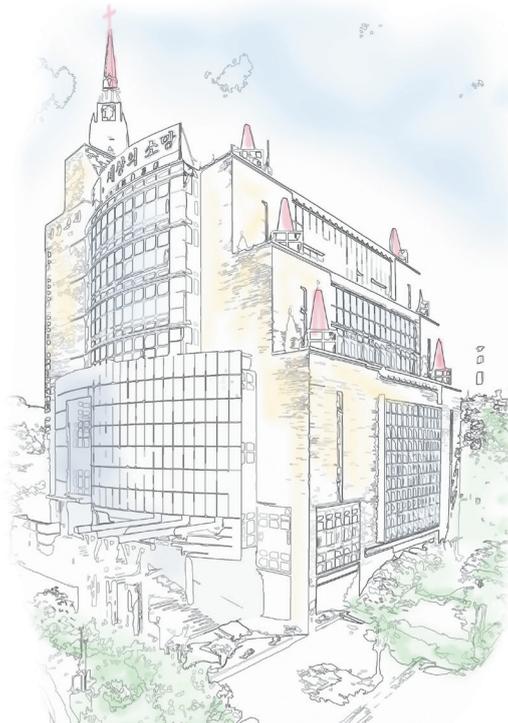
It is Jesus who does not break a bruised reed and does not snuff out a smoldering wick (v.3). God wonderfully uses those who have a mind of compassion and love. Christianity is a religion of love. Love is the power of Christians.

4. The servant who is never discouraged

The servant who is used by God is not discouraged (v.4). William Kerry who is called the Father of mission in modern times learned a tribal language for the Indian mission and a grammar book and dictionary of Indian over the past decade. Incidentally, one day, upon returning home after paying a visit to people for mission work, he found out that his house and the book of Indian grammar were burnt. But because he was never disappointed, and prayed God, and started it again, he received much more grace and power from God.

My beloved Christians,

The servant that God, first of all, uses must take after Jesus. By becoming a servant of God who only relies on him thoroughly, a humble servant, a passionate and loving servant, a servant who is not dismayed,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 a God's people who takes after Go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사명자대회 승전보고

오늘 찬양예배 시

서울교회는 해마다 교회 설립 초심으로 돌아가 50일 동안 사명자대회를 진행함으로써 오늘 승전의 기쁨을 감사로 맞고 있다.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2015년 사명자대회를 10월 4일(주)부터 11월 22일(주)까지 50일간 진행하였다.

릴레이 자유키도, 다니엘 기도 등 기도운동과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VIP를 전도하여 "VIP초대 새생명축제"를 개최하였다. 또한 11월 16일(월)부터 21일(토)까지 "아버지의 마음"(롬 8:15)이라는 주제로 특별새벽기도회를 진행하였다. 감사하는 승전보고를 오늘 찬양예배 시에 갖는다.

2016 섬김위원 임명식

다음 주 I·II·III부 예배 시 / 3부예배 후 교구총회

다음 주일 2016년도 남녀 서리집사 및 협동집사, 협동권사, 은퇴협동집사, 은퇴협동권사, 교구일꾼, 각 위원회, 교사, 찬양대원, 각 부서 섬김위원을 임명한다.

다음 주일 주보와 함께 배부될 2016년도 섬김위원 명단에서 본인의 이름이 기재된 모든 부서의 섬김위원들은 감사함으로 임명 받아 2016년 한 해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한다.

모든 2016년도 섬김위원들은 2016년 1월1일자로 해당 부서 봉사를 시작한다.

2015년도 섬김위원들은 12월말까지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며, 12월 한달 동안 모든 업무를 인계한다.

2016 농어촌100교회·한가정 한선교사 후원 비전2020후원자 모집

다음 주 부터 후원자 접수 - 사무국으로 제출

2016년도 농촌100교회 운동과 Vision2020 운동 한 가정 한 선교사 후원자 접수를 사무국에서 받는다. 내년에도 따뜻한 나눔을 통하여 이웃과 민족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주보와 함께 배부될 2016년도 섬김위원 명단에서 본인의 이름이 기재된 모든 부서의 섬김위원들은 감사함으로 임명 받아 2016년 한 해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한다.

제100회기 총회장 초청 노회임원 간담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 100회기 총회장 초청 노회임원 간담회가 오는 12월 3일(목) 오후 4시 본당에서 있다. 경건회 후 12개 노회 임원들의 질의 응답 및 간담회가 있는 후 오후 6시 만나홀에서 식탁교제의 시간을 갖는다.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바란다.

11월 성경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

〈성경필사〉 1명 (12교구) 하정자 권사
 〈3독〉 1명 (9교구) 김경숙5 집사
 〈2독〉 1명 (16교구) 하영수 장로
 〈1독〉 1명 (4교구) 홍광숙 권사 (6교구) 강영순 권사 이덕빈 집사 (9교구) 박희서 집사 (11교구) 이경희2 권사 정미자1 집사 (13교구) 김동진 권사 홍건표 권사 (16교구) 이상호2 집사

12월 주요행사

- 12.6(주) : 2016년 섬김위원 임명 - 1, 2, 3부 예배 시 3부 예배 후 교구총회
- 12.13(주) : 3부 예배 후 교사 총회 성탄축하찬양(가브리엘찬양대) - 찬양예배 시
- 12.20(주) : 세례식, 성탄축하 특별행사 (교육부서 전체) 찬양예배 시
- 12.24(목) : 성탄 전야예배 - 오후 7시
- 12.25(금) : 성탄절 새벽예배 - 오전 5시 성탄절 축하예배 - 오전 9시, 11시
- 12.27(주) : 향존직 은퇴식, 장로안식년, 장한 어머니상 시상, 주간성경공부 시상 - 찬양예배 시 특별제직회 - 찬양예배 후
- 12.31(목) : 송구영신예배 오후 11시20분~2016년 1월 1일(금) 오전 0시 30분

스데반회 총회

12월 3일 (목) 오후 6시

스데반회 총회를 12월 3일(목) 오후 6시 식사(802호) 오후 7시 101호에서 갖는다. 스데반회원들은 전원 참석 바란다.

권사회 총회

12월 2일 (수) 오후 1시

제1 제2 살롬 권사회가 12월 2일(수) 수요일예배 후 101호에서 총회로 모인 후 각 권사회별 속회가 있다. 모든 권사회원들은 전원 참석 바란다.

- 살롬 권사회 : 502호 · 제 2권사회 : 101호
- 제 1권사회 : 501호

대진중앙교회 쌀 기증

강원도 고성 대진중앙교회(김준기 목사) 성도들과 믿지 않는 이웃 주민들이 지난 여름 서울교회의 전도와 봉사에 감사하여 추수한 쌀 80kg을 보내주었다. 이 쌀로 오늘 전교인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이종윤 원로 목사의

크리스찬의 신앙곡선

크리스찬과 신앙

I.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결 (시 32:1-11)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며 기도한다. 하나님께는 분명히 인생 각자를 향한 신 계획이 있으시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만일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소경이 길을 더듬어 가는 것처럼 평생토록 곤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죄인이면서 유한한 인생들이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터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 한 송이 꽃으로,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뵈는 다. 그런가 하면 신구약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독생 성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격과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시 32:9)라는 다윗의 말처럼 말이나 노새가 앞다리를 뺏대고 뒷다리를 잡아빠며 주인의 뜻을 거역하면 돌아오는 것은 매뿐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 7:17).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향하여 뜻을 가지고 계시지만 불신자를 향하여도 뜻을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요 6:39-40)고 하셨다. 하나님의 불신자를 향하신 뜻과 계획은 그의 영혼 구원이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겨준 생명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하실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처럼 불신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구원계획 밖에는 없다.

반면 신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롬 12:1-2에 기록되어 있듯이 경건생활과 성결생활이다. 이로써 성도들이 성숙한 경지에 이르러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성결한 생활, 헌신적인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재는 척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일하는 일꾼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골 3:23)의 말씀처럼 반심(半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니 우리는 하나님께 한 쪽 마음만 드리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기노스코’라는 헬라어 단어는 안다는 뜻으로 “양은 그 목자를 알고 목자는 그 양을 아나니”의 말씀처럼 부부관계처럼 뉘속까지 안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 로다”(32:8) 라고 말씀하신다. 주님이 나를 주목하시는데 나도 주님을 주목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야 바르게 생각할 수 있고 의미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고 포기하거나 버려야 할 것이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참되고 행복한 삶을 살자.

(다음 주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의 절기와 행사를 정하여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제정된 것이 교회력(教會曆)입니다. 교회력은 대림절(待臨節 Advent)로부터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에 해당되며 매년 11월 30일과 가장 가까운 주일이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은 11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대망하던 구약성경의 예언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약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의 강단 색깔은 절제와 경건과 준비를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대림절은 강림절(降臨節) 또는 대강절(待降節)이라고도 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조용히 묵상하는 기간이 되도록 합시다.

2015 사명자대회를 마치며

봉사와 헌신, 충성으로 전도하는 사명자!



오광환 장로
(사명자대회 본부장)

서울교회는 교회설립 50일 전부터 사명자대회(구:비전2000운동)를 시작하여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준비하며 사명 받은 자로서 교회주위 축호전도, 청계산 등산로 노방전도 등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온성도들이 사명자대회에 참여하여 기도하며 전도하여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금년에도 교회 설립 24주년을 50일 앞둔 10월 4일(주일)부터 11월 22일(주일) 까지 온 성도들이 기도와 전도운동에 더욱 힘썼습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의 "나 여호와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같이 그 광야를 여호와와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서 기뻐함과 찬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는 주제성구 아래 말씀으로 무장하고 5,000명의 VIP를 품고 기도하며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다니엘 기도, 다락방 기도 외에 연속기도회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연 6,188명이 교회에 나와 성경 30,940장을 읽고 연속기도에 참여하여 친구약 26회독하며 교회의 기도 불길을 이어갔고, 10월 23일(금)과 10월25일(주일)1부 2부 3부 찬양 예배시 새생명축제를 통해 구

원의 말씀을 선포하여 초대받아 오신 352명의 VIP 들중 결신하기로 결신자가 172명이며 이외 사명자대회 기간동안 결신등록자가 114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유아부등 11개 교회학교도 이 기간중에 새진구 초청잔치를 벌여 94명의 친구가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51명이 결신을 하여 총 497명의 VIP가 와서 말씀을 듣고 301명의 결신자를 얻는 결실을 얻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회 주위의 청실아파트 입주와 맞춰 70인 전도대가 전도활동을 하며 우리 성도들도 교회주위의 믿지 않는 백성들을 전도하기 위해 관계를 맺으며 전도하고 등록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월 23일 새생명축제는 담임목사님의 구원복음제시에 172명의 결신자를 수확하였습니다.

마지막 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위해 교구와 각 다락방에서는 특별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도록 다락방별 카콜을 했고, 원거리 사시는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주무시고 바로 기도회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차량안내 분과에서는 839대의 차량을 주차안내하였고 예배안내분과에서는 매일 5~6명의 안내위원들이 일찍 나와 1일 평균 400 여명의 성도들의 자리를 안내하며 연참석인원 2,606명의 기도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 일찍 출근하는 성도들을 위해 제2권사회에서

식사를 준비하여 연 인원 369명에게 식사를 제공하였으며 특별새벽기도회 마지막날에는 사명자 대회 본부에서 떡을 준비하여 300여 명이 함께 떡을 떼며 그동안 받은 은혜를 나누며 감사하는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명자 대회 본부에서는 7월 11일 전체 실행위원 준비 모임을 시작으로 매주일 분과장 회의로 사명자 대회를 준비하며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명을 받은자로 기도와 전도에 힘을 써 서울교회의 정체성을 이어가며 말씀이 살아역사하는 교회, 성령으로 뜨거워 하나되는 교회, 봉사과 헌신으로 충성을 다하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자들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신 박노철 담임목사님과 교회에서 주무시며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 아침 일찍 자녀손을 잡고 교회에 나와 뜨겁게 기도하신 연세 많으신 권사님, 땀흘려 헌신한 2015 사명자대회 각 분과장 실행위원들과 식당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헌신 봉사해주신 모든 분들 기도로 힘써주시고 전도에 동참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드리며 2015 사명자대회 승전보고를 드립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박은영 집사 (5교구)

11월21일(토) 사명자 대회 특별 새벽기도회를 마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비전 2020 운동본부 집사님들과 저희 부부 포함 약 40여 명은 새벽을 가르며 강원도 삼척 23사단 철벽신병교육대대 내 등 대교회로 출발했습니다. 그곳은 제 아들 신영이가 전투분대장 교육중대 조교로 복무중인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마침 이날 휴가중이었기에 우리 부부는 내 아들 같은 훈련병들의 하나님 자녀 되는 귀한 잔치에 참여하러 기쁘게 갔습니다.

지난 7월 7일 삼복더위 다 껴 있는 계절에 그것도 102보충대(강원도 춘천)로 입대하는 아들 배웅할 때

의 근심 걱정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축복의 자리로 향하는 마음은 감사가 넘쳤습니다. 기대와 설렘 속에서도 '몇 명이나 오겠어?' 하며 들어선 저 자신의 믿음 없음이 부끄럽게도 80명의 훈련병들이 예수님과 의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5-12기 162명 중 80명이나 참여한 것이지요. 왜 군 선교를 하는지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군에 보낸 후 하루에도 몇 번씩 철벽신병교육대 카페를 들락거리며 땀글도 달고 수료식 면회와 외박 후기를 쓰는 열혈염마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다른 종교 활동과 다르게 기독교 활동소식들이 없을까 의아하고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훈련병 아들들의 기쁨 폭발 찬양, 경건한 예배 축복의 세례식과 성찬식 선물과 기념품 전달 모습까지 이

젠 제가 아들 모습 보길 간절히 원하는 부모님들과 전국의 모든 철벽가족들에게 생생 리포터로서 천국잔치 소식을 전달하며 전도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또다시 감격과 감사가 넘치며 기쁨의 찬양과 간절한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서툰 부모 노릇에 늘 험겁고 두려운 저에게 믿고 맡기면 직접 양육하시고 맞춤형으로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높여 드리며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염마가 되겠습니다.



제 38학기 서울성경대학 2015년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 수료자 명단 - 총 247명

살롱경로대학 69명

강서분 공진분 구연복 김경자 김금자 김길자 김덕자 김만순 김미순 김복순5 김부안 김신애 김연정 김영철 김희경 김희옥1 나옥녀 민정이 박경희 박동희 박두영 박순식 박양일 박영숙1 박정숙3 박준식 박춘자 박혜숙 백명자1 소정부 송옥혜 신종건 심상덕 심상목 안병숙 안창휘 양옥자 오정환 유순임 이경자 이덕민 이동인 이부자 이순환 이영윤 이은희 이점화 이춘자 이현숙3 전행자 전해원 정병무 정봉금 정빈모 정애신 정인숙 정정숙 정정화 정희화 최봉애 최성이 최정옥 최주희 최창화 최향봉 한순명 한정옥 황성연 황일운

교구일꾼양성반 8명

김성혜 김진현 남궁규 박미영 박순자 이원석 최재련 황해란

교사 양성반 4명

김권식 송채원 윤분남 이인호

레위기 11명

강석조 김성혜2 김영현 김집숙 김혜순 리승현 박석현 손운문 유운순 이상호2 한문영

서울음악교실 20명

강명신 김병호 김성호 고석태 류정환 박수현 박주면 안성광 이겸손 이경화 이길재 오명숙 오숙희 오현숙1 윤현미 이향수 전행옥 최덕기 최정임 황중수

선교대학 11명

문남이 박영준 박종권 송행희 유미숙2 이길재 이영기 이영숙1 이영숙4 장석남 주화인

성경동독반 7명

강소영 김영숙11 김성자1 박은주3 서경희2 송미정 양미정

어머니 힐링 스쿨 41명

강정화 김미애3 김미영3 김세연1 김숙영2 김인영2 김태옥 김혜란 문남이 박계진 박영애 박수옥 박현영 박화실 백난희 서정녀 석상화 서춘희 송지윤 송행희 신아령 안미애 양종숙 유경희 유승애 윤계진 윤미순 이영일 이윤진1 이주연9 이현숙3 조미정 조정옥 지강희 채명숙 최종희 한명순 한은경 한효숙 홍영미 장민자

비블리오바이블스쿨(BBS) 29명

김경숙 김지윤 김윤미1 김찬중 김하진 김혜나 김효은 노진철 박동하 박인성1 배은준 배은찬 백송희 손예은1 오선아 오승아 이상훈8 오선혜 이수아1 이정현3 이화용 인미나 우스라 임영여 양세정 조상의 정우성 최주하 최경선

영성케어스쿨 15명

김숙자3 김옥순 김혜성2 김태옥 박수옥 문옥일 박정임 심상필 이영임 이현숙3 윤명규 윤현미 오지열 조정옥 정애신

영유아 어머니 하트스쿨 6명

기유진 김세연1 송지윤 송혜원 신아령 최설경

역대기 11명

김성혜2 남궁규 박길희 신봉하 유선희 이경희3 이계홍 장영순 전숙향 최금봉 최원석

전도학교 15명

기세현 김경자6 김은연 김수원 공명례 남경혜 박영신2 백선희 심미옥 윤영숙2 이진리 오숙영1 양연평 조예진1 최형숙

동 정

■ 이중운 원로목사는 11월30일(월) 미래한국미디어이사회 참석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부산지회 창립축사를 한다. 12월5일(토) 사랑의쌀운동 몽골UB이사회 개회경건회 설교를 각각한다.

■ 이갑진 장로 박우주 권사 (12.1-12) 순태기 집사 박우옥 권사 (12.28-12.12) 이재울 선교사 호주 아들레이드 한인교회 단기선교팀 (선주성 장로, 박우향 권사)과 함께 캄보디아 해병31여단 영여성캠프 리더선교교육 선교출장

■ 연주: 4교구 백경화권사(가브리엘지회)의 국립합창단 지휘 데뷔콘서트 12월1일 오후8시 예술의전당 IBK홀

■ 공연: 15교구 신모란 집사 청람성악회 정기연주회 오페라 오디세이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12월 3일(목) 오후 7시 30분

■ 주일식당봉사: 에스터 전도회(11.29) 마리아 전도회(12.6)

■ 금주의 식사 제공: 안홍희 집사 전회전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대림절을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쁨과 소망이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2. 12월을 통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지혜를 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도록
3.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아동시흥의)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 배	오후 1시 30분	본 당 II, III 층
	I 부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본 당 II 층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교회 오시는 길



서울교회QR코드

